

녹색성장 5개년 계획내 녹색기술 R&D 사업 변천 과정

이병진¹, 한성옥^{1,2,*}, 엄장환¹, 채수일¹, 송병찬¹
¹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; ²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(sohan@nrf.re.kr*)

주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 R&D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투자와 종합 조정체제 구축을 병행함으로써, 중복방지과 시너지 제고를 추진하는 가운데, 우리나라는 4차에 걸친 기후변화 정부종합대책(3개년)을 수립하고 제4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('08 - '12). 이는 '12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R&D투자를 2배로 확대하고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80%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, 온실가스 감축기술/기초·원천기술/건물·교통 분야 에너지 효율성 향상기술개발/국제공동연구 등 추진 중이다. CCS 기술개발의 경우, '00년 ~ '09년까지 총 1,069억원의 정부예산 투자가 진행되었다.

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은 녹색기술투자부문에 있어,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업이다. '11년 대비 '12년 총 투자금액은 38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, 바이오리파이너리 시스템 공학 원천기술개발, Intergrated Water Technology 원천기술개발, Korea CCS 2020 사업 기존사업 지원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이되는 등 다각화의 길을 걷고 있다. 또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표 R&D사업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특성화 전략을 기획추진 중이며,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하여, 차등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.

본 논문에서는 '09년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을 살펴보고, 그 변화와 추이에 대하여 논의한다.